

세계 스마트폰 절반은 애플...삼성 점유율 하락

<48.9%> <17.2%>

미국 시장조사업체 작년 4분기 매출 점유율 현황 발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이 3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최근 지난해 4분기 세계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 현황을 발표했다.

SA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지난해 4분기 매출 점유율은 17.2%로 2011년 4분기(19%) 이후 3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1위 애플은 대화면을 장착한 아이폰6의 인기로 힘입어 4분기 최대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다. 애플의 점유율은 삼성보다 2배 이상 높은 48.9%로 50%에 육박했다. 지난해 4분

기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애플이 쓸어담은 것이다.

삼성도 전년 점유율 기준으로 1위 애플(37.6%)에 뒤진 25.1%를 기록하며 2위에 머물렀다. 2년 전인 2012년(29.4%) 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2010년 이후 줄곧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며 2013년에는 34.1%를 기록, 애플(34.2%)을 턱밑까지 추격했으나 다시 10%포인트 넘게 밀리게 됐다.

LG전자는 전년(4.1%)보다 소폭 상승한 4.3%로 2년 연속 매출 3위에 올랐다. 지난해 5

월 출시한 G3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점유율을 5% 이상 기록한 것이 3위 수성의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4위와 5위는 화웨이(3.8%), 소니(3.7%)였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중국 제조업체 샤오미는 3.3%로 6위에 올랐다.

화웨이와 샤오미를 비롯한 오포(OPPO), 비보(Vivo), 레노버, ZTE, 쿠파드, TCL-알카텔 등 중국 업체 8개사의 점유율 합계는 16%로 LG전자의 4배 수준에 달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에서 나온 이익 가운데 88%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과 비슷한 스마트폰 판매량(SA 추산 7450만대)

를 올린 데다 매출액 점유율은 50%를 기록하고도 수익은 대부분 혼자 챙긴 것이다. 이는 애플이 삼성 등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고가 스마트폰인 아이폰만 만들기 때문인데, 아이폰6 시리즈의 판매효과가 4분기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이익점유율 또한 급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의 4분기 이익점유율은 고작 8%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총 100원의 이익이 났다면 8원만 삼성 몫이 된 셈이다. 지난해 바르디에 전락을 내세워 매출액이나 판매량에서 급성장한 중국 제조업체들은 이익점유율 10대 업체 가운데 단 3곳(화웨이, 샤오미, 오포)만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예쁜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

인터넷진흥원 실태조사

구매자 72% 외형 중시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단말기의 디자인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내놓은 '2014년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요약본)'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자 6000명 가운데 72.4%가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가 '단말기 외형(디자인 및 단말기 크기/외형)'이라고 답했다. 단말기 가격은 52.4%가 중요하다고 답해 2위에 올랐고 이동통신사가 51.8%의 근소한 차로 뒤따랐다.

반면 아이폰 OS, 안드로이드, 윈도우모바일 등 운영체제(OS)는 21.4%, 주변인 권유 또는 입소문은 13.5%로 응답률이 저조했다.

모바일인터넷 단말기 중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98.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의 일 평균 모바일인터넷 이용 시간은 1시간36분이었다.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의 92.4%는 '가정'에서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동 중인 교통수단 안에서(86.7%)', '길거리, 공원 등 실외 장소(70.5%)'가 뒤따랐다. 또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의 10명 중 7명(72.5%)이 '가정, 직장 등에서 유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해도 모바일인터넷 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의 65.6%는 '유선인터넷보다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모바일인터넷 이용 목적으로는 99.0%가 뉴스, 생활정보, 기타 정보검색 및 일반적인 웹서핑 등과 같은 '자료 및 정보 습득'을 꼽았다.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도 97.5%였다.

이동통신사@

작아지는 태블릿 PC “휴대성이 대세”



7.9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미니.



8.4인치의 갤럭시탭.

작년 3분기 평균 크기 8.2인치

2012년 이후 소형화 추세

화면 사이드가 커지고 있는 TV,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 PC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 큰 화면보다는 휴대성을 강조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태블릿 PC의 평균 화면 크기는 8.2인치로 집계됐다. 태블릿 PC는 평균 화면 크기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1분기 9.3인치에서 2분기 9.6인치로 10인치에 육박한 뒤 이후 계속 작아지면서 8인치대까지 내려왔다.

반면 화소 밀집도(정세도)를 나타내는 평균 ppi(pixel per inch)는 3분기 기준 201ppi로 나타났다. ppi는 디스플레이 패널 1인치당 화소(픽셀) 수를 의미한다.

201ppi는 22인치 크기의 모니터를 3840×2160의 UHD(초고해상도)로 구현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작아진 화면 크기와 달리 화질은 더 세밀해지면서 콘텐츠 감상 환경은 진

일보한 셈이다. 패널업체 관계자는 “5인치대로 커지는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지는 노트북 PC 등과 경쟁하기 위해 휴대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서 태블릿 PC 화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10인치대 아이패드로 태블릿 PC 시장을 개척한 애플 역시 지난 2012년부터 7인치대 아이패드 미니를 내놓고 있다.

당초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삼성이 아이패드보다 크기가 작은 갤럭시탭을 내놓자 “7인치 제품은 도차 시 이미 사랑해 있을 것(DOA, dead on arrival)”이라고 비판했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막지는 어려웠다.

태블릿 화면 크기의 감소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대형화 추세와는 상반된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팔린 LCD TV 중 40인치 이상의 비중이 50.7%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앞서 2013년 40인치 이상 비중이 41.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9%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연합뉴스



LG, 내달 스페인 모바일 전시회 새 스마트폰 공개 LG전자가 다음달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업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급형 스마트폰은 L시리즈(3G), F시리즈(LTE) 등 기존의 보급형 라인업을 화면크기와 사양에 따라 개편된 것이다. <LG전자 제공>

금주의 추천앱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가족과 즐거운 연휴를 보냈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떨어지기 싫어하며 아쉬워할 아이들을 달래줄 앱을 소개한다.

다음 키즈짱/제작 : Daum Kakao Corp./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동요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앱이다. 디즈니, 뽀로로 등 인기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색깔놀이 등 다양한 놀이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사용시간 제한 및 잠금을 통해 부모 안심기능을 제공한다.



어린이 동화책/제작 : Euna/안드로이드

어린이들에게 좋은 무료동화 300편을 그림과 함께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재생기능을 통해 책을 읽어주는 기능도 있어 잠자기 전 아이들에게 안심맞춤이다.



헬로 색연필/제작 : Raysoft.co/안드로이드, 아이폰

헬로 색연필은 모바일 상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이다. 실제 색연필을 사용하는 듯한 사실적인 묘사와 다양한 스케치 기능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여준다. 기본기능은 무료이며 추가적인 색연필 색상이나 밑그림은 인앱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